

## SD “8월 22일 김하성 데이”



▲ 오는 8월 22일 김하성 데이 행사를 열린다.  
사진=mlb.com/padres

김하성(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트레이드 가능성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양새다.

지난 31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샌디에이고 구단은 최근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2023시즌 프로모션 이벤트 일정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김하성 데이’ 행사가 오는 8월 22일 열린다. 샌디에이고 구단은 이날 4만 개의 김하성 버블헤드 인형을 당일 입장하는 관중에게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버블헤드 인형 증정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오래된 전통이다. 특히 버블헤드 인형은 팀 내 간판스타들을 본떠 만든 것으로 머리를 끄덕이는 게 특징. 샌디에이고는 주력 선수인 후안 소토(4월 14일), 매니 마차도(5월 15일), 다르빗슈 유(7월 25일),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9월 6일), 김하성까지 총 5명의 버블헤드를 제작한다. 김하성의 버블헤드 인형

은 주루 플레이로 뛰어가는 모습을 담았다. 올해 메이저 리그 3년 차를 맞은 김하성은 처음으로 구단 간판선수로 인정받은 셈이다.

2021년 KBO리그 키움을 떠나 빅리그에 입성한 김하성은 지난해 팀 내 주전 유격수로 맹활약을 펼쳤다. 특히 내셔널리그 유격수 부문 골드글러브 후보에 오를 정도로 빼어난 수비 실력을 뽐냈고, 11개의 홈런을 날리는 등 타격에서도 한층 발전한 기량을 과시했다.

이에 따라 김하성의 트레이드설도 서서히 수그려드는 분위기다. 샌디에이고가 올겨울 자유계약선수(FA)로 유격수 잔여 보각자를 영입하면서 김하성의 거취가 관심을 끌었다. 현지에선 주전 내야 수들이 이탈한 보스턴 레드삭스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등을 예상 행선지로 꼽기도 했다. 그러나 샌디에이고가 김하성 버블헤드 행사를 마련했다는 것은 웬만하면 그를 내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 할 수 있다.

언론들도 김하성을 올해 주전 2루수로 전망하고 있다. 유명 스포츠매체인 ESPN은 지난 27일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개막전 예상 타순과 공격력 순위를 매기면서 김하성을 1번 타자, 2루수로 출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나달 부상에 올 때 감격의 눈물 흘린 조코비치

로저 페더러(42·스위스·은퇴)와 라파엘 나달(37·6위·스페인), 그리고 노바크 조코비치(36·1위·세르비아). 20년 가까이 남자테니스를 지배해온 이들을 사람들은 ‘빅3’라고 부른다. 이를 중 누가 역대 최고의 선수인지를 논하는 것은 늘 테니스 팬들의 관심을 불러왔다. 이제는 조코비치가 현재는 물론, 역대 최고라고 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조코비치는 전날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오픈 남자단식 결승에서 스텔파노스 치치파스(3위·그리스)를 세트스코어 3-0(6-3 7-6<7-4> 7-6<7-5>)으로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했다. 자신의 10번째 호주오픈 우승에 성공한 조코비치는 통산 22번째 메이저대회 우승으로 나달의 최고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지난해 페더러가 은퇴하고 나달도 여파로 올해 호주오픈 2라운드에서 탈락한 상황에서 조코비치만이 건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코비치는 호주오픈의 전조전이었던 애들레이드 인터내셔널 1차 대회 우승을 시작으로 올해 치른 12경기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 이제 30대 중반인 조코비치는 최소 1~2년 정도는 지금과 같은 경기력을 보일 수 있음을 호주오픈을 통해 증명했다.

조코비치는 각종 누적 기록에서도 페더러와 나달을 이미 넘어섰거나, 곧 넘어



▲ 호주오픈 남자 단식에서 우승한 뒤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있는 노바크 조코비치. 사진=연합뉴스

설 것이 확실시된다. 우선 조코비치는 나달과 같은 메이저대회 22회 우승을 차지했고, 향후 부상만 없다면 나달을 넘어설 것이 유력시된다.

여기에 조코비치는 남자프로테니스(ATP) 파이널스 우승 6회로 페더러와 공동 1위에 올라 있으며, 메이저대회 바로 다음 등급인 마스터스 1000시리즈 우승도 38번이나 차지해 역대 최다 우승자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조코비치는 호주오픈 우승 후 “이번 대회는 내 생애 가장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며 “이번 우승은 내 생애 가장 큰 승리라고 말할 수 있다. 작년에 뛰지 못하고 올해 돌아왔는데 변함없이 환영해주고 반겨준 팬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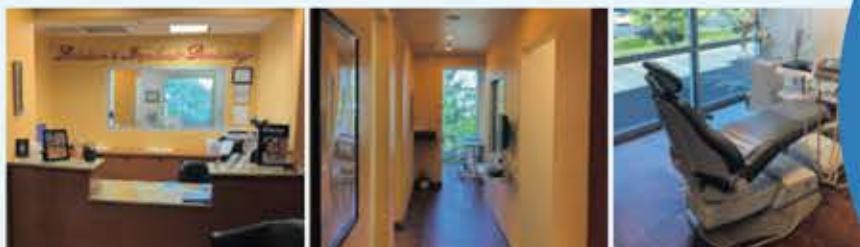
## 어바인 Total Care & 임플란트 치과

### 시니어 스페셜!

**65세 이상 메디케어로 발치,  
뼈이식등 구강외과 혜택 가능**

메디케어 인증 병원

컴퓨터 가이드 임플란트 시술로 무절개,  
무통증, 빠른 회복, 치과공포 있으신 분  
정맥마취로 자면서 치료 가능



James Kim 치과  
949.727.0777  
한국어 문의 949-702-7811  
113 waterworks way #220  
Irvine, CA 92618

74420 Hwy. 111 Suite 1, Palm Desert, CA 92260  
760.779.5662 (팜스프링 지점)

